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문재인대통령이 《9월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한 공동 발표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9월 19일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9월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한 공동발표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9월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하여 발표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판문점선언리행의 풍성한 수확을 안고 문재인대통령과 역사적인 선언에 서명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이번에 북남관계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여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한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전면적으로

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실천적대책들에 대해 의논하고 군사분야의 합의를 채택하였으며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확약한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각계각층의 패향과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화해와 통일의 대화가 북남상권리에 용융히 흐르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방도를 협의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선언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높이는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외지로 불타는 겨레의 넋이 있으며 머지않아 현실로 펼쳐질 우리모두의 꿈이 담겨있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에게 서울을 방문할것을 약속하였다고 하시면서 평화와 번영

으로 향한 성스러운 려정에 언제나 두손을 굳게 잡고 앞장에 서서 함께 나아갈 의지를 표명하시였다.

이어 문재인대통령이 발표를 하시였다.

문재인대통령은 남과 북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합의사항의 리행을 위한 상시적협의를 진행하기로 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남과 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나가기로 한데 대하여 말하시였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거대한 역사적사변이 일어나고있다고 하면서 남과 북이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취하

기로 한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위원장께서 서울방문요청을 폐히 수락하였다고 하면서 김정은위원장의 서울방문으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오늘 김정은위원장은 한반도비핵화의 길을 명확히 보여주었고 핵무기도 핵위협도 전쟁도 없기를 바라는 온 겨레와 세계의 여망에 부응하였다고 하면서 김정은위원장의 결단과 실행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문재인대통령은 남북관계가 흔들림없이 이어져갈것이라고 확인하면서 지난봄 한반도에는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뿌려졌고 오늘은 가을의 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열리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9 월 평 양 공 동 선 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대한민국 문재인대통령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북남수뇌회담을 진행하였다.

수뇌분들께서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이후 북남당국사이의 긴밀한 대화와 협상, 다방면적인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수뇌분들께서는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남관계를 민족적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북남관계발전을 통일로 이어갈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수뇌분들께서는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수뇌회담이 중요한 역사적전기가 될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북과 남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지지역에서의 군사적대대관계종식을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 ① 북과 남은 이번 평양수뇌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리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리행하며 조선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 ② 북과 남은 북남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합의서의 리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무력 충돌방지를 위한 항시적인 연계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북과 남은 호혜와 공리공평의 원칙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 ① 북과 남은 올해안에 동, 서해선철도 및 도로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가지기로 하였다.
- ② 북과 남은 조전을 이룩하는데 따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 ③ 북과 남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북남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 ④ 북과 남은 전염성질병의 류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북과 남은 흠어진 가족, 친척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① 북과 남은 금강산지역의 흠어진 가족, 친척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안에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 ② 북과 남은 적십자회담을 통하여 흠어진 가족, 친척들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교환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북과 남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① 북과 남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중에 평양에 솔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② 북과 남은 2020년 여름철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여름철올림픽의 북남공동개최를 유지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 ③ 북과 남은 10.4선언발표 11돐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인민봉기 100주년을 북남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북과 남은 조선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리전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실질적인 전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기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 ① 북측은 동창리발동기시험장과 로케트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 ② 북측은 미국이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냉변핵시설의 영구적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 ③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국무위원장은 문재인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2018년 9월 19일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9월 19일 역사적인 북남수뇌회담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고있는 문재인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리설중추사께서는 옥류판 앞에서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를 따듯이 맞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김영철동지, 리수용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동지,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김능오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동지,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차희림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오찬에 참가하였다.

오찬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조영준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김제현 산림청 청장,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 처장,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중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실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한 남측수행원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리설중추사께서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함께 오찬회장에 나오시자 참가자들은 열렬한 박수로 환영하였다.

오찬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9월 19일 문재인대통령과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에서 만찬을 함께 하시였다.

평양시민들은 뜻밖에 찾아오신 북남수뇌분들을 뵈움게 된 격정과 환희에 넘쳐 열렬히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은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시민들에게 따듯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김영철동지, 리수용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인 한광상동지, 김여정동지,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김능오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동지,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차희림동지와 남측수행원들이 만찬에 참가하였다.

만찬은 화기에 넘치는 단란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만찬에 앞서 문재인대통령내외분은 식당에서 평양 시민들을 만나 담소도 나누었다.

본사정치보도반